

나이 들어감에 대해

김 영 삼

혜화초등학교 교사

나이 50이 넘어가니 쉽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버렸다. 샤워를 하려고 바지를 벗을 때도, 샤워를 끝내고 새 속옷을 입을 때도 많이 불안하다. 균형을 잡지 못해 비틀거리서 넣고 빼야 할 다리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 결국 한 손을 벽에 짚고서야 가능한 일이 되어 버렸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다.

자고 일어나면 두 다리를 번쩍 들어 내리면서 일어나는 멋진 동작들을 이제는 못한다. 그러기에는 허리가 염려되고 순간적으로 힘을 쏟아 부을 용기가 없어졌다. 이제는 천천히 호흡을 길게 하면서 일어난다. 그게 건강에 더 좋다는 스스로의 위로에 만족해한다. 그래도 예전의 멋진 동작에 대

한 그리움은 많이 깊다.

아내를 위로하는 방법이 달라졌다. 상황에 맞는 예쁜 말들로 가끔씩은 감동을 주어 고기반찬도 먹고, 이런저런 칭찬도 들었는데 이제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해야 할 말들과 해서는 안 될 말들의 구분이 어려워졌다. 그리고 하고 있는 말들이 잘못된 사실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다. 결국 뺏어버렸고 한동안 아내의 눈치를 봐야 한다. 나는 아내가 많이 무섭다.

아랫배가 너무 나와서 발끝을 보려면 목을 빼고 봐야 한다. 나이와 인격이라는 변명으로도 나온 배에 대한 부끄러움과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런데 누워서 고개를 조

금만 들어보았더니 발끝이 쉽게 보였다. 그렇다. 굳이 발끝을 보기 위해 아랫배를 넣거나 고개를 쪽 내밀 필요 없이 누우면 된다.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은 맞추어 가며, 스스로를 변명도 하고, 위로도 하고, 쉽게 살아가려 한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욕할 사람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 나이를 이제는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한다. 그래도 배가 많이 나왔다는 사실이 부끄럽다.

내 나이 오십은 그렇다.

지금은 고인이 된 소설가 이외수 선생이 어렵게 보여 준 「단풍」이라는 시는 요즘 글발이 많이 무디어진 나를 반성하게 만들었다. 선생의 간결한 표현과 깔끔한 글 마무리가 좋았다. 몇 번이고 읽으면서 입속에 담겨놓고 풀어 보려 했다. 그러나 이 시는 발표되면서 인터넷에서 많은 논란을 만들어냈다.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글은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온갖 비난을 받고 있었다. 문단에 만연해 있는 남성 중심의 성 문화에 대해 엄청난 지적을 해대고 있었다. 성적으로 묘사한 것과 여성 비하의 부분이 문제라고 사람들은 이야기 한다. 나름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열려있다고 생각했는데 당황했다. 그런데 나는 그냥, 그냥 나는 시를 읽었다. 이제 나는 이념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에서 탈락되었나보다.

큰일이다. 이런 내가 걱정이다. 입을 다물어야겠다. 담배 생각만 난다. 이도 큰일이다.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난리를 친다. 이렇게 아무 결정도 못 하는 나는 더 큰일이다.

내 나이 오십은 그렇다.

친구가 「늘 평안하시길」이라는 글귀와 함께 「조용헌의 휴명당」이라는 책을 선물했다. 꼭 저와 같은 책을 선물한다면서 투덜거렸지만, 이내 책에 빠져들었다. 어렵지만 괜히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대는 묘한 책이었다. 조용헌 선생은 이 책에서 도시인들이 꼭 봐야 할 기운 솟는 명당 22곳을 소개했다. 도시인들 모두가 내가 된 거 같았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착각을 만들어 주었다. 무료하긴 한 일상에 재미있는 일들이 생길 거 같은 묘한 기대감이 생겼다. 그리고 묘한 기대감과 함께 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의지가 생겨났고, 그 의지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게 무지 기뻛고 그 사실들에 나는 안도했다.

내 나이 오십은 그렇다.

이제 내 나이는, 겨우 오십을 넘겼다.

나이는 우리에게 흰머리와 주름살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나이에 어울리는 깊이 있는 멋도 함께 준다. 늙는다는 것과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단순한 생물학적 노화에서의 의미보다는 젊은 사람들에게서 없는 것들이 새로 생겨나는 데 만족을 해야 한다. 감정의 노화를 걱정하면 된다.

가와기타 요시노리의 「중년수업」을 읽으면서 많이 단련되었던 나인지라 무계획이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 새로이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다. 자고 일어나 조용헌 선생의 명당이 생각나면 간단히 준비하고 떠나면 된다. 떠났다가 힘들면 명당은 아니지만 쉴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가면 된다. 일개미 중 20%의 노는 개미처럼 대열에서 이탈해 보려 한다. 보편적인 것에 순응할 필요는 없다. 그냥 마음 움직이는 곳으로 몸을 움직여 볼까 한다.

이제 나는 샤워를 할 때 옷을 입고 벗으면서 서두르지 않는다. 벽을 잡고, 느리지만 야무지게 처리한다. 멋있는 동작에 대한 동경을 접어두기로 했다. 안전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기로 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기로 했다. 아랫배가 나온 사실을 감출 필요는 없다.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운동을 해나가기로 했다. 욕심을 버리고 공부의 순수한 목적을 조금씩 찾아

가면 된다.

아내는..., 여전히 무섭다.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잘되지 않는다. 포기하고 사는 게 나을 듯하다. 이제 다시는 소파 위로 올라가서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고, 쓰레기 분리수거는 제시간에 맞춰 할 것이다. 눈치껏 행동하여 눈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벗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아껴줄 것이다.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들에 감사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 지금, 이제야 내 나이는 낫고 여섯이다. 그래서 더더욱 좋다. **이분제상**